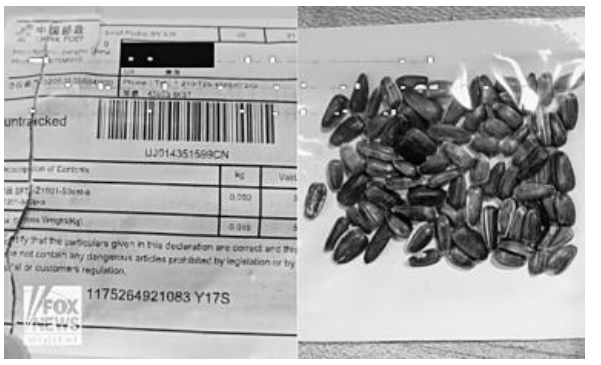
중국발 '정체불명 소포에 미 검역당국 긴장

미국과 대만 등에 중국발 정체불명의 종자와 흙 등이 배달돼 해당 국가 검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0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대만의 한 여성은 최근 겉면에 '식물배양토' 라고 적힌 중국 상하이(上海)발 소포를 받았다. 이 여성은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해당 물건을 주문하지 않아 관계 당국에 신고한 뒤 공항 검역소로 해당 소포를 보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은 그 소포에 220g 식물배양토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역국은 해외에서 온 정체불명의 흙이나 씨앗 등은 병해충 및 전염병을 유입할 수 있는 만큼 무단 사용 및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최소 9개주에서는 주민들에게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해졌다. 소포 겉면에는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 있었다.

미국 각 주 농업 당국은 중국발 소포로 씨앗을 받은 주민은 당국에 신고하고, 씨앗을 땅에 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켄터키 농업 당국은 성명에서 "아직 우리는 이것이 장난인지, 인터넷 사기인지 아니면 일종의 바이오 테러리즘인지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 고 발표했다.



▲ 종자와 흙 등이 담긴 중국발 정체불명의 소포에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FOX NEWS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우체국이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었다." 며 "식물 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금지 물품에 속하며 중국우체국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 고 설명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우체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소포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세계 첫 성공"

이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전날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는 동영상을 배포하고 "제14차 '위대한 예언자' 훈련의 일부로 지하 깊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라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통상적인 발사대 없이 지하에 은폐된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와 함께 자체 군사위성 '누르' 로 촬영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분석하는 훈련도 했다고 발표했다. 누르는 4월 22일 이란이 발사한 첫 군사위성이다.

미군 1만3천여 명이 주둔하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에서 미군이 벌이는 대테러 작전의 핵심 시설로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군이 언급하는 대테러 작전에는 이란의 군사 위협에 맞선 대응도 포함한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탄도미사일 '지하발사' 장면. 사진=On Demand News 화면 캡처

혁명수비대는 "항공 모자이크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누르 위성으로 중동 내 다른 주요 지역도 촬영했다." 라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군사위성과 연계된 공격 전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독 미군 1만2,000명 감축"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1만 2,000명 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구체적 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 30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만 1,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큰 감축 규모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중 약 5,600명은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로 배치되고, 약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 재배치되는 지역은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발트해 주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그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 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동맹에 대한 시각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 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